

2014년 창작뮤지컬 우수재공연 지원사업 심사평

- 일시 : 2014. 6. 2(월) 14:00~16:30
- 장소 : 예술가의 집 세미나 1실
- 심의위원 : 박병성, 변희석, 서재형, 원종원, 조광화 (가나다 순)

2014년 창작뮤지컬 우수재공연 지원 사업은 기존의 창작산실(구 창작팩토리)에서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작품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재공연을 계획하고 있는 모든 창작뮤지컬로 그 대상을 넓혔으며, 국내 및 해외 공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번 공모에는 총 31건이 신청되었다. 대본, 음원, 공연 영상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총 6건을 최종 선정하였다. 작품의 예술성(40%), 공연단체의 역량(30%), 작품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30%)을 기준으로 평가 하였다.

500석 이상 중·대극장 작품으로는 <그날들>과 <심야식당>을 선정하였고, 예술성과 완성도면에서 큰 이견 없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500석 이하 소극장 작품으로 <사춘기>와 <정글라이프>, 두 작품 모두 현대사회의 문제를 다루어 관객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작품으로 소극장 창작뮤지컬의 저력을 갖추었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총각네 야채가게>의 경우 성공적인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어 지원을 결정하였다. <덕혜옹주>의 경우 대본 공모부터 우수공연까지 지원을 받아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 가는 등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지원을 하게 되었다.

우수재공연 지원 선정작의 지원은 제작규모, 출연진 등을 고려하여 지원액을 차등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양한 소극장 작품의 지원이 많았던 데 반해, 대극장 작품과 해외 공연 작품의 지원신청이 적었던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이번 창작뮤지컬 우수재공연 지원에 선정된 작품 모두 향후 발전 가능성에 주목할 만한 작품들이었으며, 특히 소극장 작품의 경우 무대미술 등을 보완하여 세련된 모습으로 공연되길 기대한다.

창작뮤지컬 우수재공연 지원사업 심의위원 일동